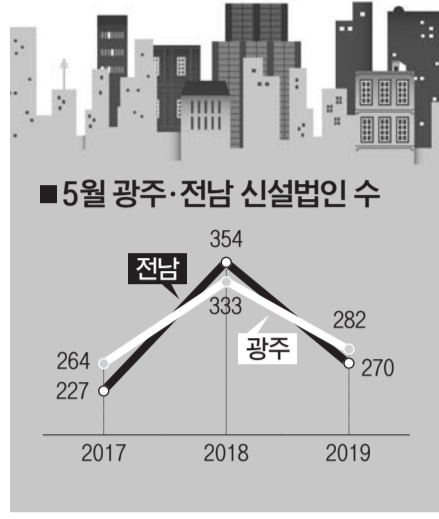


광주·전남 창업 '꽂꽂'...신설법인 8.5% 줄어

중기부 5월 신설법인 동향 발표...광주 282곳·전남 270곳
전국 8967곳 6.7% 증가 속 광주·전남 감소 폭 가장 높아

광주-전남 창업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전국적으로 신설법인이 늘었지만, 광주-전남은 또 떨어졌다. 지역경기가 좋지 않아 회사 창업에 대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놓은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광주지역 신설법인은 282개로, 전년동월(333개) 대비 15.3% 감소했다. 전남은 270개의 법인이 새로 생겨 지난해 같은 달(354개)보다 23.7% 줄어들었다. 감소 폭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올들어 지난 5월까지 광주-전남 신설법인 수는 3059개로, 전년동기(3343개) 대비 8.5%(284개) 감소했다. 이 기간 동안 광주는 전년 대비 11.2% 줄어 전국에서 감소 폭

이 가장 컸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신설법인 수가 7개월 연속 줄어 들었다. 전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감소했다. 반면 전국적으로는 신설법인이 증가했다. 5월 한 달 간 전국에서 8967개 법인이 생겨 전년동월 대비 6.7% 늘었다. 경기 376개, 인천 110개, 충남 49개, 부산 48개 등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 신설법인이 꾸준히 증가해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등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월 신설법인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1933개(21.6%), 제조업 1604개(17.9%), 부동산업 1192개(13.3%), 건설업 839개(9.4%) 순으로 많았다.



제조업은 음식료품, 섬유·가죽, 고무·화학을 중심으로 전년동월 대비 13.8%(194개) 늘어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서비스업은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전문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년동월 대비 12.3%(670개) 늘어난 6108개로 집계돼 8개월 연속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40대 3081개(34.5%), 50대 2356개(26.4%), 30대 1861개(20.8%) 순으로 법인을 많이 설립했다. 특히 지난해 5월보다 30대 미만 창업자는 9.3%, 60대 이상 창업자는 16.7% 늘어 모든 연령대가 증가했다. 30대 미만은 금융·보험업(23개 ↑)과 도·소매업(19 ↑)에 집중됐으며, 60대 이상 창업은 부동산업(57개 ↑)과 제조업(50개 ↑)에 몰렸다. 성별로는 여성 신설법인 수가 2308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6% 늘었고, 남성 신설법인 수는 6659개로 5.4% 증가했다. 전체 신설법인에서 여성 신설법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9%포인트 높아진 25.7%였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청년·예비창업자 돕는다 광주 동구 창업지원센터 개소

광주시 동구 '창업지원센터'가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서석동 벤처빌딩 2~4층에 동지를 특 창업 지원센터는 연면적 2043㎡ 규모로 센터(2층), 마을공방(3층), 청년창업허브 공간(4층) 등으로 꾸며졌다. 센터에는 지난 달부터 19개 창업·예비 창업 기업이 입주해 활동하고 있다. 동구는 지난 1일 개소식을 열고 전문강사와 함께 취·창업 설명회를 진행했다. 센터는 '지역공간이 살아나는 일자리통합 지원 및 창업허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창업교육을 통한 혁신창업기업 육성 ▲소상공인 맞춤형 취·창업 종합지원 ▲일자리협력 체계 및 네트워크 허브 구축 등을 추진한다. 지난 달에는 중국 국가인증 창업지원기관 '대공방'(大公坊)과 업무협약을 맺고 시제품 제작 지원, 전문가 지원 일대일 창업특화 멘토링, 특허·기술개발 지원, 민간 투자기관 연계지원 등도 진행한다. 또 아이플렉스 광주, 조산대 산학협력단 등 유관기관과 손잡고 소상공인과 청년창업자를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동구는 오는 11월까지 6개월 동안 센터 2층 교육장에서 예비창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스쿨'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전문인력을 활용한 취·창업 종합서비스를 제공해 창업네트워크 조성하고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홍희 기자 kimyh@



청년 일자리 카페 "특강 들어오세요" 광주시 북구는 일자리 상담, 취업·창업 특강 등이 진행되는 '북구 청년 일자리 카페'를 전남대 후문에서 지난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청년일자리 플랫폼 '다잇소' 사업의 하나로, 북구는 올 하반기 열릴 예정인 중흥동 청년문화센터에 창업 지원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광주시 북구 제공>

"여성 창업 키운다"...창업·성장 지원 강화

전용 벤처펀드 300억 추가·취약계층 창업자금 50억원 늘려
올해 여성 창업을 늘리기 위해 300억원 규모의 여성기업 전용 벤처펀드가 추가 조성되고 취약계층 여성 창업자금을 50억원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여성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 '창업기업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창업기업 32만1748곳 가운데 창업자가 여성인 경우는 45.9%인 14만7839곳으로 나타났다. 여성 창업자 비율은 지난해 같

은 분기(47.3%) 보다 떨어졌다. 특히 올 1분기 기술기반 업종 창업자 성별을 비교해보면 남성 60%, 여성 39.8%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중기부는 '예비-초기-도약기' 단계별 로 구성된 여성 기업 전용 기술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여성 전용 벤처펀드는 3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한다. 오는 2022년까지 5년 동안 총 1000억원 규모 펀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취약 계층인 여성 가장을 위한 창업 지원 자금은 기존 25억원에서 75억원으로 50억원이 보태졌다. 여성 기업의 경영 안전 지원을 위해 5000억원 규모 여성 전용 특별보증 프로그램과 100억원 상당의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여성 기업들의 판로 촉진도 강화한다. 공공구매 목표를 지난해 8조5000억원에서 9조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여성 기업 제품의 TV 흡소품 특별방송을 월 1회에서 2-3회로 늘린다. /백희준 기자 bhj@

조계현 원장의

톡 톡 창업이야기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분쟁의 본질

산업통상자원부의 2018년 프랜차이즈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는 프랜차이즈 본사 4631개, 브랜드 5741개, 가맹점 24만8000개, 본사와 가맹점 전체 연간매출이 120조원으로 성장한 프랜차이즈 공화국에 살고 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업계가 성장할수록 브랜드들의 경쟁도 치열하고 본사와 가맹점의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라는 그늘도 가지고 있다. 경쟁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업종을 떠나 일상적인 일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문제는 본사와 가맹점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분쟁이 증가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본사는 본사대로, 가맹점은 가맹점대로 서로의 입장에서 오는 불편함이 존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쌍방이 서로 타협하거나 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으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서로 잘해보자고 의기투합해서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니 웬만하면 분쟁이슈에 대해서 서로 타협이나 양보를 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막상 상황이 닥치면 쉽지 않다. 왜 타협이나 양보가 어려운지에 대해서 본사와 가맹점 입장에서 각각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본사 입장에서 보면 특정 가맹점 하나에 계약서와 다른 양보나 타협을 하게 되면 다른 가맹점도 비슷한 수준의 양보나 타협을 원하게 되는 도미노 현상이 가장 두려운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가맹점 관리의 형평성이 무너지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이런 타협과 양보는 본사에게 굉장한 위적인 금전적인 손실로 이어지는 사안이 대부분이라는 사실도 본사의 타협과 양보에 한계를 느끼게 한다. 다음은 가맹점 입장에서 타협과 양보를 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도 살펴보자. 대개의 경우 본사의 가맹점 관리 부실과 납품제품에 대한 지나친 폭리 등이 주요 원인이라는 표면적인 이유가 있지만 실제에 접근해보면 가맹점이 매출이 안올거나 수익성이 너무 낮을 경우 주로 본사에 대한 불만이 쌓여간다고 보면 거의 틀린 말이 아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본사의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지원과 납품제품에 대한 가격인하 및 영신의 연장 등을 강하게 요청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적극적인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매출과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운영비 부족과 적지 않은 금전적인 손실을 입게 되고 결국은 가맹점을 폐업해야 되는 상황에 내몰리지 않을까 두렵기 때문에 본사에 타협과 양보를 쉽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듯 각자의 전혀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생긴 극명한 입장차이로 쉽게 좁혀지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조금 더 본질적인 핵심에 접근해보면 각자의 전혀 다른 이유들이 아니라 분쟁원인은 하나로 압축된다. 그건 바로 매출이다. 가맹점들의 매출이 높으면 본사는 구매파워가 생겨서 제품을 조금 더 낮은 가격에 구입해 공급할 수 있고 가맹점관리 인원도 충분히 배정할 수 있다. 가맹점은 매출이 높으면 수익도 상승해 가맹점주의 가맹만족도가 높기에 다소 높은 가격대의 제품공급이나 다소 서운한 가맹점 관리도 살짝 눈감아주고 본사와 분쟁할 생각을 크게 하지 않는다. 결국 본사와 가맹점의 분쟁의 최종 원인은 가맹점의 매출임을 직시하고 본사는 가맹점이 만족할만한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아이템 경쟁력과 마케팅 능력, 지속적인 운영지원 능력을 갖추는데 집중해야 한다. 가맹점은 점주와 직원의 역량강화와 고객서비스 품질강화 및 지속적인 자체 홍보마케팅을 통한 매출향상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선제적이고 이상적인 본사와 가맹점의 분쟁 방지 전략이 아닐까 싶다. <한국지역산업연구원 원장>

태양광발전소 연계 ESS에너지저장장치

-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태양광 발전소에 ESS 설치시 REC 가중치 5.0배
- 설치방법 : 본인부담 10% · 용자 90%
- 1년거치 14년상환 (1개월이내 설치완료)

제품

LG ESS 삼성SDI SAMSUNG

경제 혁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 자료

태양광 발전소에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대폭 확대

- 태양광 +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사(가) 인증치 5.0 부여 -

정부와 지자체, 에너지산업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 신재생에너지 4개 단종(태양광수·전력·전산·제약) 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협력 체결

- 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협력 체결을 통한 전면적인 규제 정비 개시

- 지자체·에너지산업 특별조례 제정 추진

- 서남해 해상풍력 등 대규모 프로젝트(4조원 규모) 추진 가격에 경쟁 능력

★태양광발전사업소, 매도·매수 하실 분 상담환영 **총괄본부장 010-9896-9754**

★태양광분양 및 태양광 현재설치중, 설치완료, 개발행위완료, 선로확보, 물건 다량확보

전국 지사·대리점·영업자 모집

대표전화 1577-8963
전남지사 010-6838-3366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주)성광에너지

주소 | 순천시 중영로 317 2층
전화 | ☎061-752-7000 Fax | 061-751-6000
총괄본부장 | 010-9896-9754